

장기적 技術人力관리



安 泰 英

〈三星航空産業(株) 專務理事〉

2년전 이맘때 美國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워튼 학교(Wharton School)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Advanced Management Program)을 밟게 되었다. 이 공계를 전공하고 정부출연 연구소를 거쳐 기업에 와서까지 주로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해온 나로서는 경영전반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쁨과 함께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데 대한 두려움이 앞섰다.

그 과정에는 세계 각국의 기업체와 정부기관에서 온 많은 경영자들이 참여했다. 과정에 참여한 경영자들이나 강의를 맡았던 여러 교수들과 사회 저명인사들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사례로 많이 언급했고 또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한국에서 온 나에게 한국의 경제와 기업경영의 전반에 걸친 많은 질문을 던져 비전공자인 나를 곤혹스럽게 했다.

물론 그들의 관심이 당시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고 한국의 국력의 성장이 극에 달했던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당시 그들의 얘기와 분위기로 보서는 마치 한국이 곧 선진국이 될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날 여러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한국의 경제전망에 대한 토론을 갖게 되었다. 이자리에서 나는 한국의 기업들이 국내외적으로 처해있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예를 들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토론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여러가지 고유의 좋은 조건들 때문에 잠정적인 일시적 경제성장의 둔화가 있을지언정 결국은 한국의 경제가 크게 성장, 발전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특히 한국과 사업상 거래관계가 있는 英國의 한 컴퓨터관련 제조업체 사장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면서까지 한국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최대의 강점은 풍부한 기술인력에 있다고 했다. 특히 자기나라에서는 우수한 인력들이 비과학기술분야를 전공하여 보수가 더 좋은 서비스산업분야 진출을 선호하고 있어 과학기술분야는 우수 기술인력 뿐만 아니라 절대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첨단산업분야의 신규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조차 계속 유지하기도 곤란하게 될것이

라고 했다. 또한 토론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그 영국인 사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에 대해 나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분야별로는 불균형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기업이 우수한 기술인력을 선택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경험있는 기술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또한 현재 산업기술의 수준도 제조기술은 어느정도 국제수준에 와있지만 설계기술능력이 부족한 형편이며 설계기술의 축적도 없어 제조업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에는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경제성장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영국인 사장의 의견은 달랐다. 그 이유와 책임이 어디에 있던간에 그 우수한 기술인력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지속적으로 기술을 향상시키지 못한 것은 체계적이지 못한 기술인력관리와 풍부한 기술인력자원의 불충분한 활용에 있다고 생각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그 영국인 사장의 단편적인 견해이기는 하지만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해있는 어려움에 비추어볼 때 다시 한번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2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그 어느때 보다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주된 원인을 기술력과 기술인력의 부족에 두고 있는 것이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이루어 놓은 세계적으로 빛나는 과학기술발명의 업적들, 그리고 지난 이삼십년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이룩한 국제적 수준의 제조기술은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구나 선진국의 많은 우수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그들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 국내에서는 치열한 입시경쟁을 통해 대학에서 이공계를 졸업한 학생들이 또다시 치열한 취업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많은 이공계 대학원에서도 우수한 석박사들을 배출하고 있어 외국에서 돌아오는 유학생들과 국내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소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업체에 서까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1960년대 후반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 연구소를 필두로 많은 정부출연 연구소들이 설립 되어 대학과 더불어 많은 우수한 국내외 고급 기술인력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체에 비해 이들 정부출연 연구소나 대학에 고향력 기술인력들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런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수한 기술인력자원의 관리와 활용실태를 보면 고도 경제성장으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전문직의 기술인력이 너무나 잦은 부서이동으로 전문지식을 심화시키거나 축적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기술개발이 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화 되고 양적으로 대형화 되어 각 전문분야가 공동으로 일하는 팀웍과 조직력이 필요하게 된 지금, 잦은 사업계획의 변경과 조직변경에 따라 부서이동이 잦게 되었고 이에 따라 조직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약화되어 결국 모든 책임을 기술력 부족으로 돌리고 말았다. 또한 여러 전문분야의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산학협동도 항시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단기적인 이해관계로 그 실행이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개인이나 조직의 기술력의 향상이나 기술의 축적은 일이나 과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재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더욱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선 지속적이고 일관된 기술인력관리와 장기적인 기술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조직이 안정되면 개인의 기술이 심화 발전하게 되고 조직력이 강화되게 되어 팀웍과 함께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기술과제를 통해 기술축적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하나의 팀을 구성하면 그 팀이 계속해서 이와 유사한 기술과제를 해결토록 해 팀웍을 다지고 기술을 축적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술력이 향상되고 세계무대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확고한 기술정책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인력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